

## 01

### 전북, 닭 사육 '전국 1위' 오리는 2위 전북지역 닭·돼지·한육우 증가...젓소·오리 감소



올해 2분기(6월 1일 기준) 전북지역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닭과 돼지, 한·육우는 증가하고 젓소, 오리는 감소했다. 닭 사육은 전국 1위, 오리 사육은 전국 2위에 랭크됐다. 게다가 젓소와 한·육우 사육은 전국 3위, 돼지 사육은 전국 4위 규모다. 대체적으로 가축 사육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3년 2/4분기(6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에 따르면 도내 닭은 601가구 3,695만5,852마리로 전년동기(602가구 3,523만2,844마리)대비 172만 3,008마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는 1가구 줄었지만 마릿수는 크게 늘었다.

육용 종계 생산성 하락으로 육계 병아리 입식 물량은 감소했으나, 삼계 및 토종닭 마릿수는 증가했다. 도내 닭 사육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어 경기(3,476만3,726마리), 충남(3,197만9,718마리), 경북(2,710만 5,969마리), 전남(2,564만1,888마리) 순이다.

돼지는 762농장 138만 4,068마리로 전년동기(791농장 136만 8,456마리)대비 2만 612마리 증가했다. 돼지 사육농장은 29곳이 감소했지만 사육마릿수는 늘었다. 돼지 사육은 충남(227만804마리), 경기(167만 9,203마리), 경북(144만5,513마리)에 이어 4번째 규모다.

오리는 117가구 208만3,955마리로 전년동기(137가구 246만5,816마리)대비 38만1,861마리 줄었다. 오리 사육가구 수도 20가구 줄고 마릿수도 크게 줄었다. 오리 사육은 전남(464만2,709마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젓소는 456농장 3만 1,143마리로 전년동기(481농장 3만 1,756마리)대비 25농장 613마리 감소했다. 경산 우 마릿수 감소세 지속으로 1세 미만 마릿수는 줄었다. 젓소 사육은 경기(15만3,555마리), 충남(6만6,334마리)에 이어 3번째 규모다.

한·#8231;육우는 9,195농장 46만4,375마리로 전년동기(9,342농장 45만9,873마리)대비 4,502마리 증가했다. 사육 농장은 147곳이 줄었지만 사육마릿수는 늘었다. 사육마릿수는 경북(81만3,740마리), 전남(63만2,030마리)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누적된 사육 마릿수 영향으로 1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02

## 폭우에 농경지 3.5만ha·닭·오리 87.2만마리 피해 농식품부, 할인행사·비축분 방출 '물가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월 24일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전국에 일일 최대 강수량 5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이날까지 3만5,392ha의 농작물이 침수 등 피해를 입고 닭·오리·돼지 등 87만2,000마리의 축산물이 폐사했다.

특히 상추 등 시설채소와 육계의 피해

가 크고, 배추·무 등 농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기 재정식 및 약제 등을 지원한다. 또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운송비·수수료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생산량 증대 및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종란을 수입해 병아리 500만마리를 추가로 공급하는 동시에 계열업체의 병아리 추가 입식을 위한 용자를 8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번 호우로 피해는 거의 없으나, 여름철마다 폭염 등으로 생산이 감소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배추·무는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매주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선정해 1주일 1인 1만원 한도로 대형마트는 20%, 전통시장은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상추 등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가격이 예상된다"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닭고기를 고르고 있다.

출처: 뉴스1 www.news1.kr



03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든 믿겼어요?”  
침수피해 전남 무안 오리농가 ‘폭우의 상처’



침수 피해를 본 전남 무안군 일로읍 태두농장 박성진 대표가 오리 사체를 담은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든 사람들이 믿겼어요? 오리만 20년 키웠는데, 요런 일은 침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만난 박성진(47) 태두농장 대표가 오리 사체가 담긴 포대 자루를 가리키며 안타깝게 말했다. 포대 18개에 담긴 오리는 500마리가 넘는다고 했다. 농장에선 2,700㎡ 면적의 천막 세동에 오리 1만5천마리를 키웠다. 그런데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 폭우가 쏟아져 천막 두동이 침수됐다.

“7월 23일 자정쯤이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길래 농장에 와봤더니 저 옆 농수로에서 물이 넘쳐 농장으로 흘러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물이 종아리 높이밖에 차지 않아 별 걱정 안 했어요. 암만 그래도 오리가 물에 사는 동물인데 별일이야 있겠냐 싶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농장에 나온 그의 눈앞에 죽은 오리 수백마리가 천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그날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 무안에는 시간당 40~57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농장 안은 진흙밭이었고, 살아남은 오리들도 온몸이 흙탕물로 범벅이 돼 있었다. 이날 하루에 수거한 오리 사체만 300마리였는데, 하루가 지나자 500마리를 넘어섰다. “오리가 계속 죽어 나자빠지는데, 어째야 쓰까 어째야 쓰까,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박 씨가 긴 한숨을 토해내며 말을 이었다.

죽은 오리들은 대부분 부화한 지 18일 된 새끼들이다. 아직 털갈이를 하지 않아 머리 부분에 노란색 솜털이 남아 있었다. 오리는 부화 후 45일이 되면 출하한다.

박 씨는 “살아남은 오리도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발열 증상을 보여 걱정”이라며 “해열제를 먹고는 있지만, 시름시름 앓는 꼬라지를 보니 모두 죽을 거 같다”고 말했다. 농장 안은 배수로를 새로 뚫음에도 여전히 물이 덜 빠진 곳이 있었다. 물이 빠진 땅엔 선풍기를 있는 대로 틀어 습기를 제거하는 중이었다.



“500마리 죽은 우리 농장은 암것도 아니랑게요. 바로 옆 닭농장은 5천마리가 죽어부러어요.” 박씨가 전하는 인근 양계농가 피해는 더 심각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무안에서만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리농장 2곳에서 2만 1,800마리, 닭농장 2곳에서 6만2,500마리가 죽었다. 범위를 국내 전체로 넓히면 닭과 오리를 합쳐 9만 8,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여름 보양식으로 오리와 닭에 대한 수요가 1년 중 가장 많은 시기다. 이때만 바라보고 1년을 준비했는데 너무 힘이 빠진다”고 했다.

김태원 전라남도 축산정책팀장은 “오리는 생후 25일이 지나면 웬만한 폭우 피해는 견디지만 박씨 농장 오리는 너무 어렸고 인근 닭농장도 태어난 지 11일밖에 되지 않은 병아리들이 주로 죽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축사 청소, 약취제거제, 소독제와 함께 살아남은 가축을 위해 면역 증강제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www.hani.co.kr](http://www.hani.co.kr)

## 04

### 취약계층에 영양보충 ‘한 끼 보양식 오리영양죽’ 전달 함안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등 안부 확인



경남 함안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세울)는 지난 7월 27일 관내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위해 ‘한 끼 보양식 오리영양죽’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한 끼 보양식’ 전달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80가구를 선정, 위원들이 집을 방문해 직접 소통하고 위기사항에 대응하는 등 고독사 방지에 취지를 두고 추진했다.

출처: 경남신문 [www.knnews.co.kr](http://www.knnews.co.kr)

05

괴산군, '제15회 아름다운 괴산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김정희 작 '오리와 함께' 금상 수상



제15회 아름다운 괴산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금상수상작 '오리와 함께' (사진=괴산군청 제공)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28일 '제15회 아름다운 괴산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전국에서 381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50점 등 총 66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금상은 김정희 씨(경북)가 출품한 '오리와 함께'가 차지했다. 사진 소재인 '오리와 함께'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간 옥수수과 수수로 만든 4m가량의 오리잡곡탑으로 행사장 메인포토존으로 사랑받았던 상징물이다. 은상에는 괴강불빛공원 야경을 촬영한 고혜경 씨(제주)와 괴산민속예술경연대회 풍물놀이를 촬영하신 김후순 씨(충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상장과 상금 300만 원, 은상은 100만 원, 동상은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출처\_CJB청주방송 www.cjb.co.kr

포토뉴스

06

오리 가족의 나들이

뜨거운 여름날 오후 아기 오리 4마리가 엄마 오리 뒤를 따라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맨 뒤 오리가 가장 작은 것이 막내인 듯합니다.



출처\_매일경제 www.mk.co.kr





## 07

## 조류 질병진단 및 부검기술 역량 강화 교육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절기 AI 차단방역 효과적 대응



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7월 21일 본소 및 지소 조류질병 담당자 9명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질병진단 및 부검실습 교육 과정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7월 21일 본소 및 지소 조류질병 담당자 9명을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질병진단 및 부검실습 교육 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직접 초빙해 맞춤형 교육형태로 진행했으며, 각 기관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금농장 질병발생 상황 등 현장 특성을 접목한 자유로운 토론회식 교육과 부검진단 실습을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부검진단술 교육은 농가에서 의심축 발생 시 특정 질병여부를 판단하는 현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중점을 두면서 교육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 김충현 박사를 초빙해 최근 가금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 진단사례를 교육하고 준비된 닭·오리 폐사체를 이용해 부검실습과 병리진단을 진행했다.

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과 실습을 통해 축산농가에 더욱 만족스러운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을 적기에 진단해 피해 확산을 막아내고 가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류질병 담당자들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 경남에서는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13농가 31만6,000수를 살처분해 약 2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러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출처\_브릿지경제 www.vival100.com